

NYPI 청소년 통계 브리프

Vol.25 2015. 10.

초등학생 삶의 만족도의 종단적 변화 분석 - KCYPS 초4패널 -

정은주 부연구위원 eunjujung@nypi.re.kr

개요

- 조 사 명** ▶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 (KCYPS) 초4패널 조사
- 조사목적** ▶ 한국의 아동 · 청소년을 7개년(2010년~2016년)에 걸쳐 종단조사함.
▶ 조사를 통해 이들의 발달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함.
- 조사대상** ▶ 초4패널을 구축하고 매년 평균 2,3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음.
- 조사방법** ▶ 조사원에 의한 개별 면접조사
- 조사기간** ▶ 2010년 ~ 2013년 (4개년)

■ 분석자료/방법

초등학생 삶의 만족도의 종단적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초4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2010년부터 시작된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는 총 3개 패널(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패널), 전체 7,000여명의 청소년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6년까지 7개년에 걸친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1~4차년도 자료 즉, 초4 (2010년), 초5 (2011년), 초6 (2012년), 중1 (2013년)의 자료를 활용하여 종단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초등학교 4학년 패널 원표본은 2,378명, 1차년도 (2010년) 조사 성공 사례 2,264명, 2차년도 (2011년) 조사 성공 사례 2,219명, 3차년도 (2012년) 조사 성공 사례 2,092명, 4차년도 (2013년) 조사 성공 사례 2,070명이다.

청소년 삶의 만족도의 년도별 변화 추이 및 기초통계는 SPSS 20.0을 활용하고, 종단적 변화 분석은 AMOS 17.0을 활용한 잠재성장곡선모형을 통해 변화 추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 조사도구

본 연구에 활용된 삶의 만족도는 총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은 김신영 외(2006)의 행복감 문항의 일부를 사용하였다.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조사문항은 총 3개 문항,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초4에서 중1까지 4개년도에 걸쳐 매년 측정하였다. 세부 문항은 매우 그렇다 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고,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문항신뢰도는 .80~.86 이었다.

표 1 조사도구 및 문항신뢰도

조사문항	응답항목	Cronbach's a			
		1차	2차	3차	4차
나는 사는 게 즐겁다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1. 매우 그렇다 2. 그런 편이다 3. 그렇지 않은 편이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80	.81	.86	.84

■ 년도별 삶의 만족도 변화 추이

- 초4패널의 삶의 만족도 평균을 년도별로 살펴본 결과, 초5학년일 때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중1이 되었을 때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삶의 만족도 점수의 범위는 1~4점이며, 전반적으로 매년 3점 이상의 평균을 보인 것은 청소년이 대체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그런편이다’ 이상으로 응답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그러나 중학생이 되면서 삶의 만족도가 초등학교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표 2 초4~중1의 만족도 평균

구분	전체		
	N	M	SD
초4 삶의 만족도 (2010년)	2377	3.21	.70
초5 삶의 만족도 (2011년)	2264	3.26	.63
초6 삶의 만족도 (2012년)	2219	3.23	.67
중1 삶의 만족도 (2013년)	2092	3.16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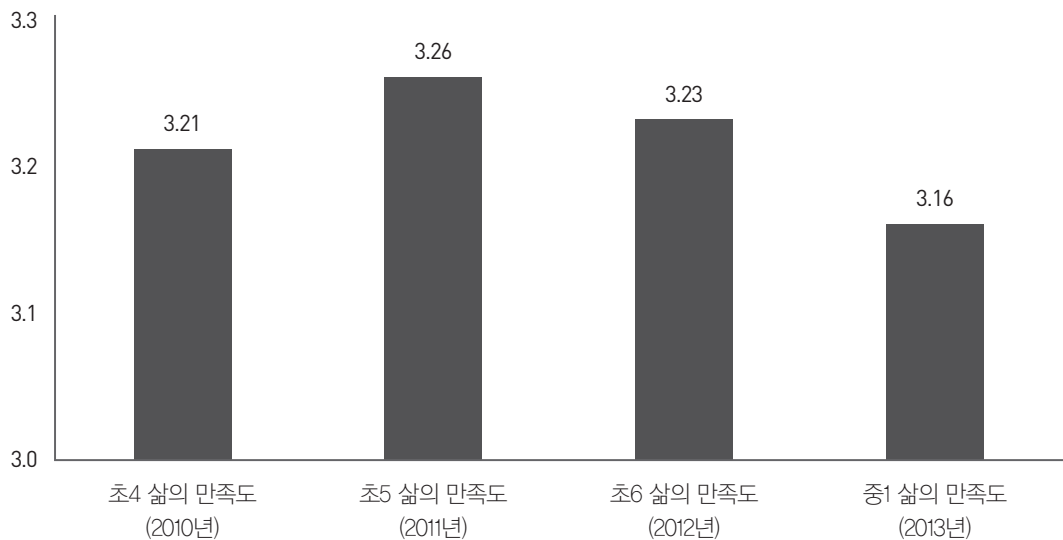


그림 1 초4~중1의 삶의 만족도 평균 변화 추이

■ 성별/년도별 삶의 만족도 변화

- 전반적으로 남학생의 삶의 만족도 평균이 여학생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초4학생의 경우 남녀간의 차이가 없었으나, 중학생이 되면서 남녀 차이가 많이 나타났으며, 특히, 중1 여학생의 경우 삶의 만족도 평균은 다른 집단에 비해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 여학생의 경우는 남학생과 비교하여 중학생이 되면서 삶의 만족도 평균이 상대적으로 급감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표 3 초4~중1의 삶의 만족도 평균: 성별

구분	남			녀		
	N	M	SD	N	M	SD
초4 삶의 만족도 (2010년)	1241	3.21	.69	1136	3.21	.71
초5 삶의 만족도 (2011년)	1180	3.31	.63	1084	3.20	.63
초6 삶의 만족도 (2012년)	1167	3.35	.64	1052	3.10	.67
중1 삶의 만족도 (2013년)	1097	3.29	.60	995	3.01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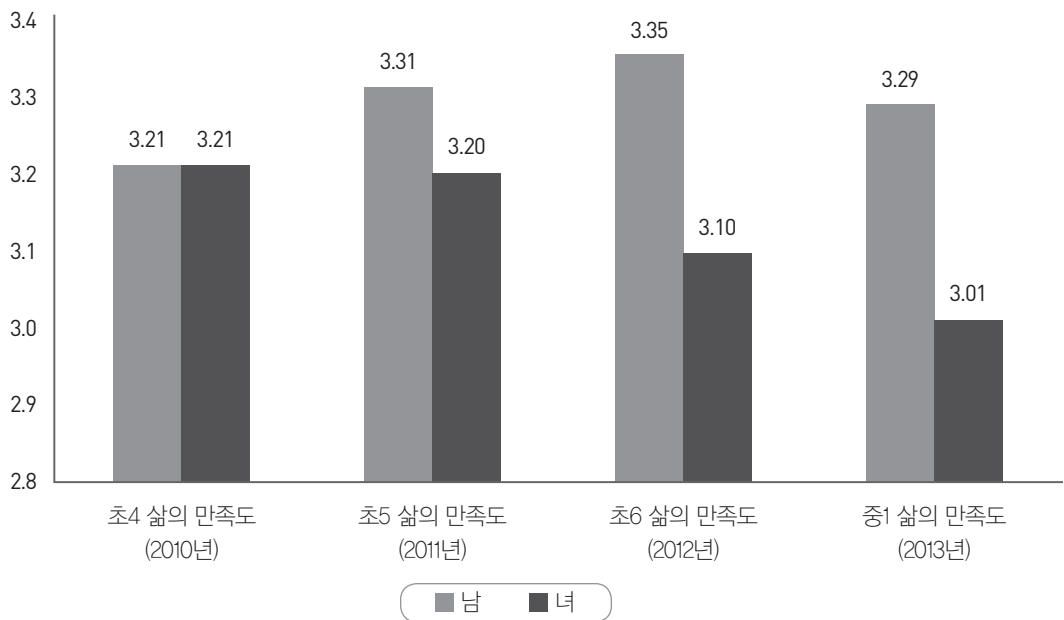


그림 2 초4~중1 삶의 만족도 평균 추이: 성별

■ 성별/년도별 남녀 차이 검증

- 통계분석을 통해 살펴본 삶의 만족도의 남녀 차이는 <표4>와 같다.
- 초등학교 4학년 삶의 만족도 남녀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초5, 초6, 중1의 삶의 만족도 평균의 남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 즉, 초5, 초6, 중1 그룹 여학생의 삶의 만족도는 남학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이다.

표 4 초4~중1년도 삶의 만족도 평균 변화 추이

구분		df	MS	F
성별	초4 삶의 만족도	1	.03	.05
	초5 삶의 만족도	1	7.80	19.65***
	초6 삶의 만족도	1	34.97	81.60***
	중1 삶의 만족도	1	38.47	101.58***
오차	초4 삶의 만족도	2010	.49	
	초5 삶의 만족도	2010	.40	
	초6 삶의 만족도	2010	.43	
	중1 삶의 만족도	2010	.38	

* $p < .05$; ** $p < .01$; *** $p < .001$

■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 추이에 대한 잠재성장곡선 모형

- 초4패널에 속한 청소년 개인의 삶의 만족도 변화를 잠재성장곡선 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년도별 변화에서는 전체평균의 상승했다가 중1에 하락하는 추이를 보였으나, 개인간의 변화를 Linear Trend로 살펴본 결과는 전반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상승하는 형태를 나타냈다. 예를 들어, A군의 중1학년 당시의 삶의 만족도는 초4학년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3, 4 참조).
- 잠재성장곡선 모형의 전반적 모형적합도 수준은 낮은 수준은 아니었으나 RMSEA가 낮은 수준이고, 평균변화를 살펴본 결과 비선형 성장곡선모형을 적용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림 3 참조).
- 비선형 성장곡선을 가정하고 모형을 검증한 결과, 선형 모형에 비해 모델적합도 수준이 나아졌다 (그림 5, 6 참조). 예를 들어, 초4패널에 속한 A군의 삶의 만족도는 초등4학년 때보다 초등5학년때가 높았고, 초등6학년이 되었을 때 더 높아졌다. 그러나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그 만족도는 유의한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러한 비선형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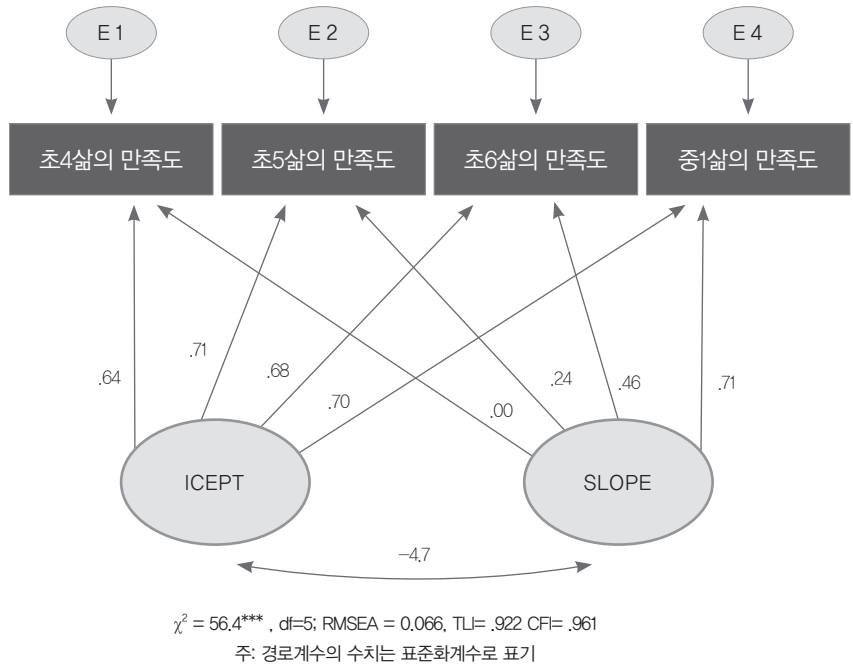


그림 3 초4~중1 삶의 만족도 변화의 잠재성장곡선 모형: Linear Tre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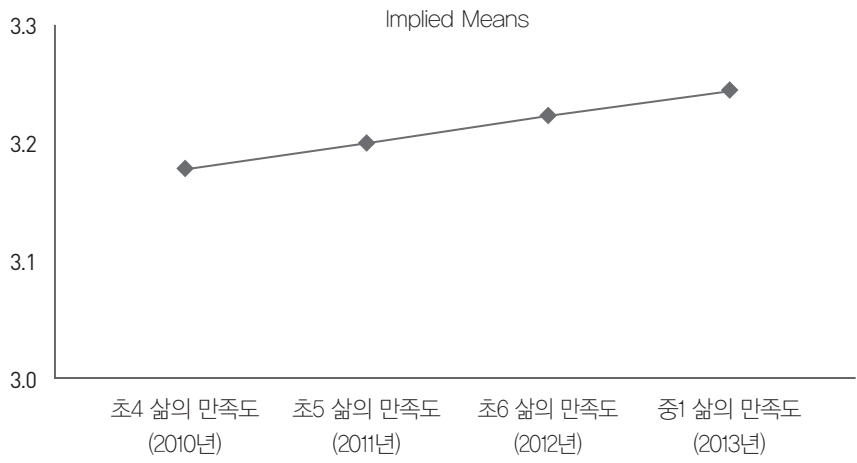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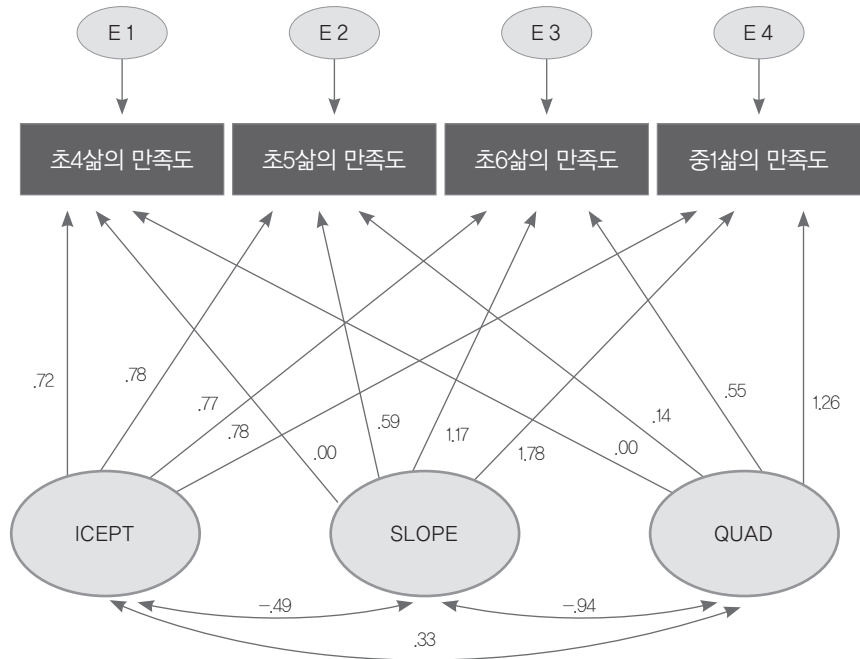


그림 4 초4학생의 삶의 만족도 변화 추이 : Linear Trend



$\chi^2 = 21.4^{***}$, $df=4$; RMSEA = 0.043, $TLI = .967$ $CFI = .987$
 주: 경로계수의 수치는 표준화계수로 표기

그림 5 초4~중1 삶의 만족도 변화의 잠재성장곡선 모형: Quadratic Tre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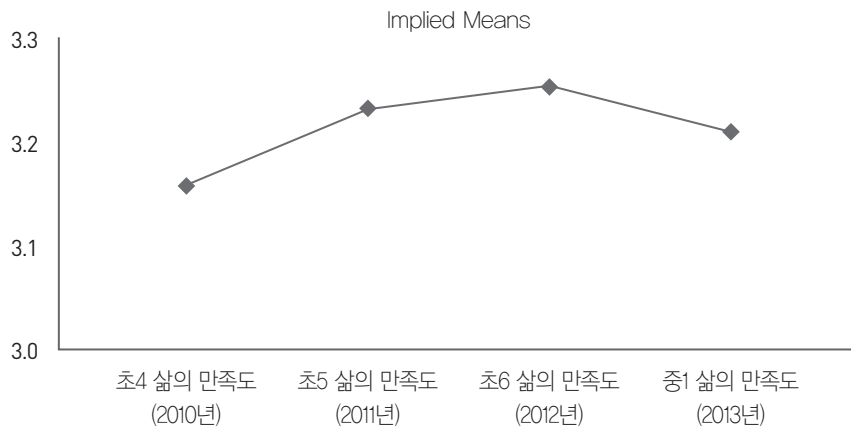


그림 6 초4학생의 삶의 만족도 변화 추이: Quadratic Trend

■ 정책적 시사점

- 첫째, 우리나라 초4패널에 속한 청소년 삶의 만족도는 매년 평균 3점 이상, 즉 전반적으로 삶에 만족하느냐의 질문에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둘째, 그러나 초등학교 시절에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던 삶의 만족도는 중학생이 되면서 급격히 낮아지는 추이를 나타냈다. 이 시기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이유는 단일 요인보다는 여러 복합 요인에 의한 것일 것이다. 학교 교육제도가 바뀌어 공부할 분량이 많아졌거나 시간의 제약이 있어 놀이시간이 줄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으로 사춘기로 접어든 청소년의 발달 특성이 이들의 삶의 만족도 저하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중학생이 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행복감 또는 삶에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좀 더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고, 이들의 삶의 만족과 행복감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줄이고 삶의 만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교육방법 이라든지 근본적인 정책적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셋째, 전반적으로 여학생의 삶의 만족도 수준은 남학생에 비해 낮았다. 특히 초등6학년, 중등1학년 당시 여학생과 남학생의 삶의 만족도 평균은 다른 학년에 비해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학생의 삶의 만족도 점수 변화가 완만한 것에 비해 여학생의 삶의 만족도 점수는 급격히 낮아졌다. 주로 초등6학년과 중등1학년의 남녀 차이가 심한데, 이는 청소년의 발달 특성상 여학생의 사춘기가 남학생에 비해 빠르고, 중학교라는 학교제도 변화와 관련하여 여학생이 좀 더 민감하게 반응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학교로 진학한 학생, 특히 여학생을 위해 이들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해 고려해보고 성별 차이를 고려한 교육방법 및 대안 등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